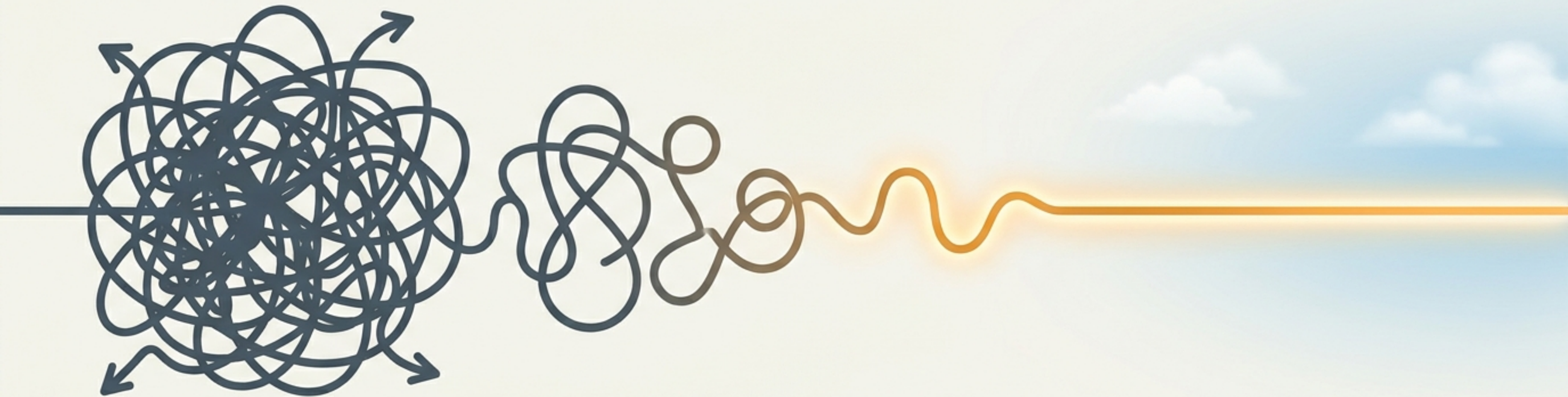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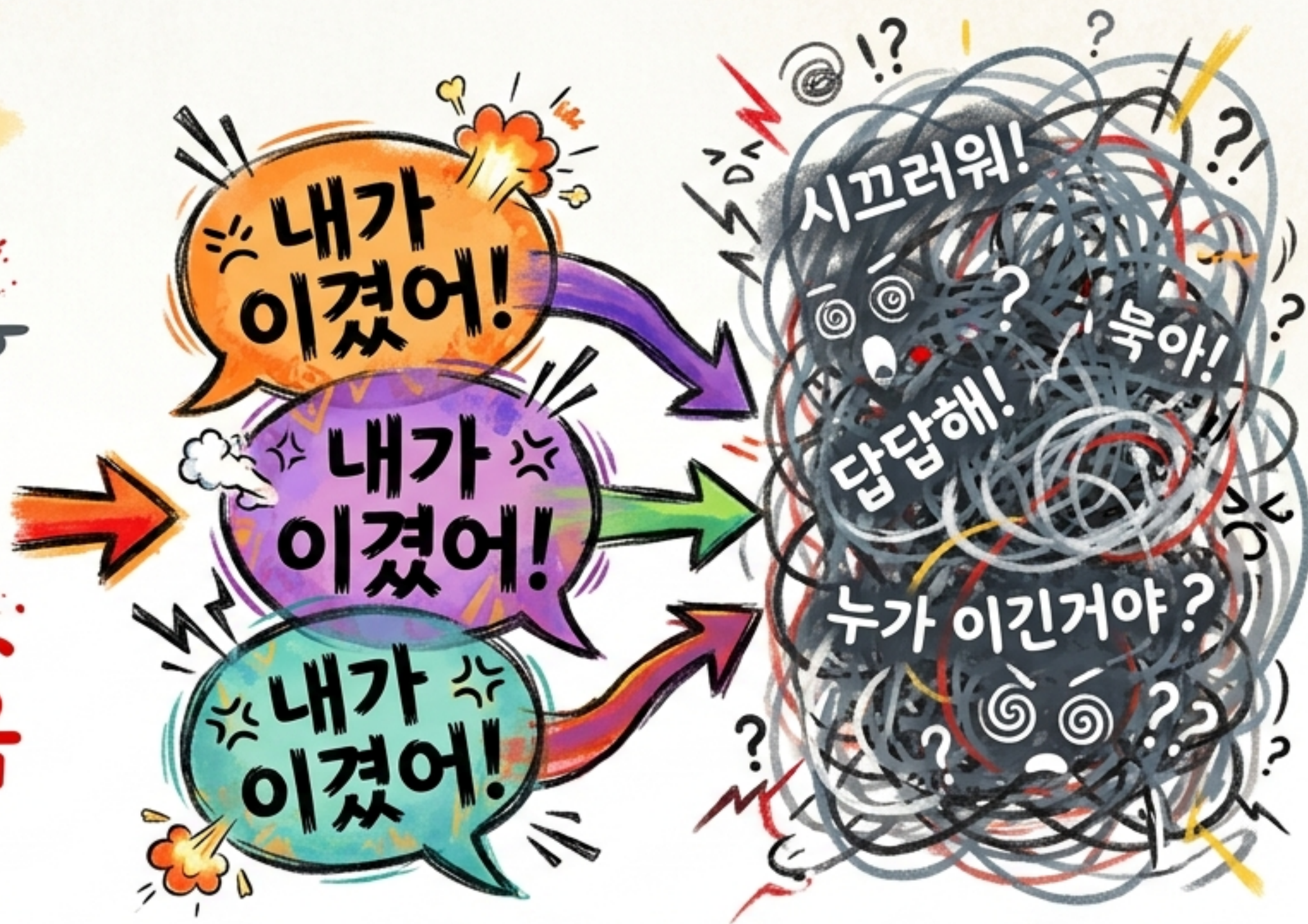
사사기 21:25

내 맘대로? vs 예수님 따라!



사사기를 통해 배우는 진짜 왕을 찾는 여정

심판 없는 가위바위보



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자기 마음대로 말하게 됩니다.
시끄럽고, 답답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엉망진창 상태가 되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 경찰, 심판...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줄
가이드가 없던 시대.



소견
(내 눈에 보이는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정답이라고 믿는 상태.

왕이 없으면, 나침반이 고장 난 것처럼
'나 자신'만 빙글빙글 맴돌게 됩니다.

미가 아저씨의 치명적인 착각



미가는 나쁜 짓을 하려던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한 틀렸습니다.

실험 1: 눈 감고 곧은 줄 긋기



내 머릿속: 나는 똑바로 긋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 실제로는 삐뚤빼뚤 엉망이다.

성경에서 '옳다'는 '곧다, 반듯하다'는 뜻입니다.
내 눈만 믿으면, 똑바르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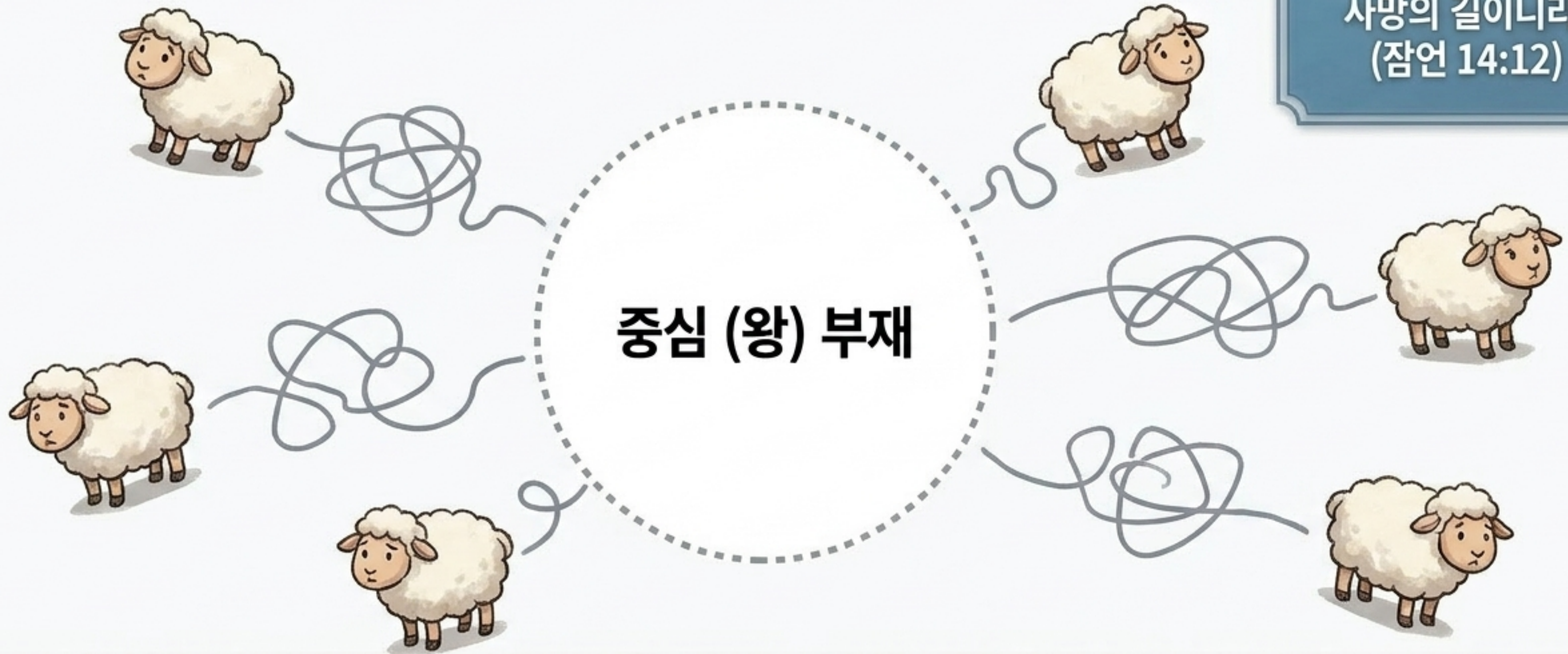
실험 2: 내 시험지, 내가 채점하기



내 눈은 좋은 잣대(자)가 아닙니다.
틀렸는데도 스스로 100점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진짜 문제는 ‘왕’이 없다는 것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12)



‘애들아, 착하게 살아!’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줄
진짜 왕이 없으면, 백 번 결심해도 결국 자기 맘대로(죽음의 길)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 예수님

폭군



선한 목자



내가 앞장설게,
나를 따라오렴.

예수님은 우리를 무섭게 부러먹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앞장서서 데려가시는 **‘목자’** 같은 왕입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

내 맘대로

기준: 내 눈, 내 기분

행동: 뻘뻘, 제멋대로

**결과: 엉망진창!
길을 잃음**



예수님 따라

기준: 선한 목자, 예수님

행동: 안전한 길로 한 걸음씩

**결과: 안전해요!
푸른 풀밭**



구호를 외쳐볼까요? ‘내 맘대로? 엉망진창! 예수님 따라? 안전해요!’

**결정의 순간,
딱 한 가지 질문**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실전 연습 A: 장난감을 빼앗겼을 때

내 눈에 훑아 보이는 길
얄미워! 콩 쥐어박는다!

엉망진창

동생이 허락 없이
장난감을 빼앗아 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목자를 따라가는 길

말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움

실전 연습 B: 게임을 더 하고 싶을 때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길

‘딱 한 판만 더 할래!’
하고 무시함

엉망진창

30분 넘게
게임을 했는데
엄마가 ‘그만!’ 하심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목자를 따라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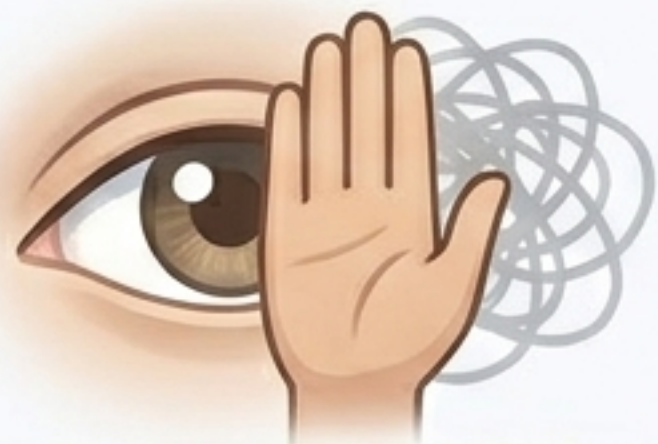
안전해요

질문을 던지고, ‘네, 엄마’ 하며 전원을 끄



가끔 깜빡하고 내 맘대로 해버려도 괜찮아요.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다시 이끌어 주시니까요!

매일매일 목자 따라가기



내 눈, 내 맘대로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예수님, 제 왕이 되어 주세요.
내 맘대로 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걸 알았어요.
내 눈 말고,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을 고르게 해 주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